

손기정의 스포츠내셔널리즘*

주동진**·김진형***·김성일****

〈목 차〉

- | | |
|---------------------|---------------------|
| I. 서론 | IV. 지도자시절의 스포츠내셔널리즘 |
| II. 손기정의 생애와 업적 | V. 노년 이후의 스포츠내셔널리즘 |
| III. 선수시절의 스포츠내셔널리즘 | VI.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 시대를 살다간 손기정의 사진 속에서 스포츠내셔널리즘을 찾아본 것이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조선의 마라톤 선수였다. 그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하여 세계기록을 갱신한 최고의 영웅이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선 그의 모습은 마치 단두대에 올라 온 죄인처럼 비참한 모습이었다. 조선(Korea)의 국민들은 세계 제패를 한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을 통하여 감격과 함께 조선의 자부심을 가졌지만 한편으로 죄인과 같은 손기정의 우승 장면으로 인하여 항일정신과 독립운동의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日章旗抹消事件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 연구는 2시간 30분대를 최초로 깨뜨린 세계기록 갱신자보다 일제에 대항한 고개 숙인 슬픈 영웅, 그 '침묵의 항거' 그리고 세계 곳곳에 사인한 '손기정과 Korea' 그리고 '한반도 그림', 이러한 그의 흔적들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손기정, 스포츠내셔널리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 이 논문은 2012년 6월 한국체육사학회와 문화재청이 주관한 '손기정탄생 100주년 기념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체육학부 ***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sl600cv@yahoo.co.kr)

I. 서론

올림픽홈페이지(<http://www.olympic.org>)에는 역대 동·하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29, 133명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손기정(孫基禎; 1912.5.29.~2002.11.15.)은 마라톤경기 메인페이지(<http://www.olympic.org/athletics-marathon-men>)의 25장의 사진 중 4장을 차지하고 있다. 5장이 당시 마라톤경기의 사진이다. 1992년 Barcelona 올림픽에서 우승한 황영조선수의 사진도 1장 포함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의 '육상 경기 페이지'에서 손기정을 찾아보면 그는 1936년 '우승자', 국적은 'JPN', 이름은 'Kitei SON', 우승기록은 '2:29:19.2'로 나온다. 여기에는 손기정에 대한 소개를 특별하게 따로 마련(<http://www.olympic.org/kitei-son>)하고 있다. 손기정을 클릭하면 전체를 가득 메운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의 사진'이 있고 여기에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일본어 이름 'KITEI SON'과 일본국적 'Japan'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는 그의 사진이 7장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간략소개를 보면 사망일은 맞지만 출생일이 '29 August 1912'로 되어 있어 '음력 8월 29일(<http://www.sonkeechung.run.com>)'과 다르다. 이 페이지는 '손기정 페이지'로써 그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을 기술해 두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South Korea)의 손기정(Sohn Kee-chung)은 1935년 11월 3일 2시간 26분 42초 0의 기록으로 세계 마라톤 기록을 세웠다. 당시 일제강점기라서 1936올림픽에 출전할 때는 일본인으로 출전하였고 이름은 일본어 이름은 손기테이(Son Kitei)이다. 손기정은 베를린에서 사인을 할 때 한국 이름으로 사인하였다. 우승시상식에서 그는 머리를 숙여 침묵의 시위를 하였다. 그가 조국에 돌아왔을 때 영웅이 되었고, 이때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삭제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9달 정지를 당했다. 1948년 광복을 맞이한 런던올림픽 때 손기정은 올림픽 참가국의 기수로서 태극기를 들고 참가하였다. 그로부터 40년 후 손기정은 76세의 나이로 올림픽스타디움에 나타났다. 그의 조국 그의 나라에서 올림픽을 열었고 그는 성화 봉송주자로 트랙을 뛰었다(이것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출처 : <http://www.olympic.org/kitei-son>).

이처럼 올림픽홈페이지는 손기정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 그를 스포츠내셔널리즘이 강한 스포츠맨으로 기술하고 있다. 올해(2012년)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의 영웅¹⁾ 손기정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된다. 이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일본의 메이지(明治)대학에서 먼저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²⁾. 메이지대학에서 손기정 탄생기념 학술대회를 연 이유는 손기정이 메이지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강원대학교에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³⁾. 그리고 손기정 타계이후 해마다 개최되는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는 올해 11월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주경기장)에서 8회째(YTN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http://www.sonkeechungrun.com>)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이전에도 그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하던 2011년에 대구국립박물관에서 전시회⁴⁾를 연 것이다. 이것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기념으로

- 1)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에 우리 민족이 살아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린 최초의 마라톤 챔피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더구나 민족혼을 일깨운 손기정 선수의 위업은 ‘영웅이상’이라 할만하다(이태영, 2012: 18).” 그리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선수는 분명히 일본에서도 「영웅」이다(모리카와, 2012: 79).” 왜냐하면 손기정의 마라톤 금메달은 “일본마라톤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손 환, 2012: 51).”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2) “메이지대는 14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9일 도쿄 스루가다이(駿河台) 캠퍼스 리버티홀에서 ‘손기정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3) 한국체육사학회가 주최한 ‘손기정탄생 100주년기념’ 학술대회(일시: 2012년 6월 15일(금)~16일(토))는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 행사를 개최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재청의 후원이 있었다.
- 4) 대구 국립박물관은 그곳의 특별전시실에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마라톤 영웅 손기정’이라는 명칭으로 손기정과 관련한 사진 전시회(2011.8.9.-10.9)를 개최하였다. 전시품은 1936년 마라톤 우승으로 받았던 금메달, 월계관,

‘손기정전시회’를 열고, 이를 통해 한국 육상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남의 나라 국기,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올림픽 출전선수였다. 그는 올림픽 종목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경기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하였다. 그는 올림픽 챔피언이며 당대 마라톤경기 종목에서 최고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벽찬 감동의 순간,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슬프고도 비참한 모습이다. 사진에 찍힌 그의 모습은 마치 단두대에 오른 죄인과 같은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88서울올림픽대회에서 손기정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성화 봉송주자로서 올림픽 메인스타디움(main stadium)에 등장했다(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http://www.sonkeechung-run.com>). 76세, 고령의 나이로 성화를 들고 뛰다가 잠시 멈춰 춤을 추었다. 52년 전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 그는 마라톤으로 우승한 챔피언

우승 상장, 청동투구 그리고 손기정 생전의 사진들이다.

- 5) 마라톤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육상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손기정이 생전에 소망했던 국제경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비록 그가 이 대회를 보지 못하고 타계하였지만 손기정의 전시회는 손기정이 선수로서 또 마라톤지도자로 있을 때 대한민국이 마라톤왕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한편, 그를 위한 또 그에 의한 대구 국립박물관의 사진들은 바라보다보면 마라톤과 대한민국, 즉 마라톤과 스포츠내셔널리즘이 매치되고 있음을 직감하게 한다. “스포츠는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한 민족의 단결과 통일, 자국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기본적 원동력이 되어 왔다. 즉, 스포츠는 내셔널리즘과 결합해서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동원하여 민족적 동질감 내지는 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민족의 단결을 촉구하여 독립과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황영조, 2009: 15).” 또한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우승한 것도 절대적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재패한 역사도 일제치하에 일본 국기를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우리 민족에게 남긴 정신은 길이길이 남아있어 훗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선수가 우승하여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준 쾌거로 기록된 것도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다(유기성·서동환·유종상, 2008: 25-26).”

이자 세계기록까지 갱신한 최고의 영웅으로서 시상식에 올랐을 때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날은 단순한 봉송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며 감격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다. 세계의 올림픽역사에 있어서도 또 한국 스포츠역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우는 쉽게 볼 수 없다.

IOC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손기정은 당대 최고의 마라토너였고 스포츠 영웅이었다. 그러나 시상대에 오른 그의 모습은 비정상적이었다. 즉, 침묵과 함께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궁금하였고 이 사진이 이 연구를 이끌어 낸 동기이다. 다시 살펴봐도 그는 금메달리스트로서 시상대에 오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단두대에 오른 것과 같아 보인다. 이 사진은 당시에든 지금도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모습 뒤편에는 그의 스포츠내셔널리즘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표정이 의도된 행위든 혹은 아니든 간에 그의 이 몸짓, 이 태도는 지금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은 타계하고 없지만 세월이 멈춰 있는 손기정의 사진유물을 중심으로 그의 내셔널리즘을 살펴보는 담론이다.

II. 손기정의 생애와 업적

손기정은 日帝強占期(1910-1945)에 태어난(1912년) 마라톤 선수로서 광복(1945) 후에는 체육지도자로서 살다간 우리시대의 사람이다. 그의 연보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912년 5월 29일 평북 신의주 출생, 1928년 신의주 약죽보통학교 졸업, 1932년 제2회 동아마라톤 2위, 조선신궁마라톤 우승, 양정학교 입학, 1933년 제3회 동아마라톤 우승, 1935년 4월 조선육상경기협회 주최 제1회 마라

톤대회 우승(베를린올림픽 일본대표1차선발전; 2시간 26분 14초; 세계신기록수립, 일본육상경기연맹은 비공인기록을 취급), 11월 3일 베를린올림픽 올림픽 파견 2차선발전 겸 제8회 메이지신궁대회 우승(2시간 26분 42초; 세계신기록수립, 장소는 신궁경기장, 이 기록은 1995년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스포츠연감에 기록됨),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 신기록), 1937년 양정고보 졸업, 1940년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 졸업 조선저축은행(현 제일은행) 입사 육상선수 및 결혼,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감독으로 서울복을 우승시킴, 1948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런던올림픽에 본부위원으로 참가, 1950년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 감독으로 함기용을 1위·송길운을 2위·최윤철을 3위로 만듦,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임원으로 참가, 1957년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및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됨, 1966년 제5회 방콕아시아경기 한국선수단장, 1968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로상 수상,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1971년 제52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점화(서울운동장 10월 08일), 1972년 뮌헨올림픽에 원로 귀빈으로 초대,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에 한국 유치대표단으로 참가, 1984년 LA올림픽 성화주자로 참가, 1987년 뉴욕에서 비킬라 아베베상 수상,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 최종주자, 1995년 동아마라톤 꿈나무재단 이사, 올림픽 100주년 기념 아테네마라톤대회 특별 초청 참가, 1996년 베를린 올림픽 60주년 기념행사 참가, 1997년 고려대 명예경영학사 원광대 명예철학박사, 2002년 11월 15일 사망(90세)⁶⁾.

이상과 같이 손기정은 우리나라 마라톤경기 종목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종진·김동규(2011)는 다음과 같이 손기정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마라톤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한 장본인 일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우리나라의 마라톤의 시작과 중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5년에 베를린올림픽 일본대

6) 이 내용은 ‘황영조(석사학위논문, 1998, 마라토너 孫基禎의 生涯와 思想)’와 ‘손환(2004,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하였고, 이 연구에 인용한 것은 ‘2012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홈페이지(손기정 소개)’와 ‘주동진(2012: 71-97, 손기정 다시보기)’의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손기정 연구’ 중 기록부문으로는 손환(2004: 7-8)교수가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표 1차선발전 마라톤대회에서 세계신기록(2시간 26분 14초)을 수립하였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는 올림픽신기록(2시간 29분 19초 2)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광복 후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때에는 서운복선수의 세계신기록(2시간 25분 39초)을 이끌어 냈다. 1950년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 때는 우승(함기용), 준우승(송길운) 그리고 3위(최운철)를 거둔 감독이었다. 한편 경기성적과 달리 국민정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손기정은 많은 역할을 하였다. 광복 전에는 일장기말살사건(日章旗抹殺事件)을 일으키는 촉매역할을 하여 조선인의 자부심과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광복 후에는 체육지도자로서 한국의 스포츠발전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공헌을 하였다.

손기정은 은퇴 후에도 마라톤 보급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손환(2004: 14)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길용기자의 일장기말살사건으로 마라톤에서 은퇴하고 지도자로 변신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재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46년에는 마라톤보급회를 조직하고 각종대회의 개최를 통해서 선수들을 발굴, 육성했는데 그 결실이 보스턴마라톤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우승이었다. 그리고 손기정은 후계자양성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뛰어난 경험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조선체육의 진흥을 위한 방책으로 체육대학의 설치, 지도자의 양성, 운동시설의 확충, 사회인선수의 육성에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손기정은 사후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한 또 그를 위한 마라톤경기(손기정 마라톤경기대회의 경우)를 하고 있다. 물론 현 육상계와 체육계는 한국 마라톤의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Ⅲ. 선수시절의 스포츠내셔널리즘

1. 1936년 베를린올림픽 이전의 모습

1) 학창시절

손기정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고 또 잘 하였다(孫基禎, 1983).”고 한다. 학창시절, 즉 양정고보(養正高普)에 다닐 때 손기정은 두드러지거나 특별한 점이 없었다. 단지 달리기를 좋아하였던 청소년이었다. 어린 시절의 손기정은 집에서 2km 가량 떨어진 학교를 매일 달리기로 통학했고 16세가 된 후 중국 단둥의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차비가 없어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 그리고 단둥에 이르는 20여리 길을 매일처럼 달렸다고 한다(참조, 孫基禎, 1985).

2) 세계기록 갱신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에 출전하기 전 1935년 11월 3일 메이저신궁체육대회에서 2시간 26분 42초 0으로 우승하였다(<http://www.olympic.org/kitei-son>). 이것은 당시 세계신기록이며⁷⁾ 이로써 그는 주목받는 마라톤의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우승사진을 보면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의 우승모습과 같은 비정상적인 죄인의 표정을 짓고 있다.

영광의 1위, 세계기록을 갱신한 기록보유자, 이러한 챔피언의 모습을 상상하면 감격에 겨워하고 기쁨에 차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손기정은 이미 베를린올림픽대회 시상대의 그 표정과 같은 모습을 하였다. 즉 죄인의 모습과 같은 이 형상은 이때에 이미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계기록을 갱신한 마라톤경기의 영웅, 그는 왜 그랬을까? 이 사진을 좀 더 살펴보면 1936년 베를린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그 모습보다

7) 이 기록은 처음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체육계의 거듭 요구에 의해 최근 IOC에서 인정하여 세계기록으로 등록되었다.

더 처절한 모습이다. 이 사진은 이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문제의 몸짓’이다.

2.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의 모습

1) 연습 때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손기정은 베를린에 미리 도착하여 연습을 하였다. 이때 그는 다른 일본국 출전선수들과 달리 일장기가 없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즉 손기정은 일장기가 없는 트레이닝 복을 입고 연습한 것이다. 그가 고의로 입지 않았던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던 그는 연습 때 일장기가 달린 운동복을 입지 않았다. 그가 일장기가 달린 운동복을 입은 경우는 올림픽대회 당일, 마라톤경기에 참가한 그때 뿐, 그 외에 그가 입고 있는 훈련복에서는 일장기를 입은 사진은 없다. 이 사진은 이 연구에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스포츠내셔널리즘을 읽을 수 있는 ‘경우의 예 1’로 두었다.

2) 시상식 때

손기정의 시상식 사진, 여기에 보이는 그의 모습, 이것은 이 연구의 두 번째 ‘문제의 몸짓’이다. 이 사진(좌인과 같은 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독립운동과 같은 선상의 ‘일장기말소사건’이 일어났다.⁸⁾ 당시 인간은 2시간 30분 안에 42195m를 뛸 수 없다고 하던 때였다. 그런데 손기정은 세계 사람들이 모인 올림픽에서 이 시간(기록)을

8) “손기정이 제패하던 1936년 8월 9일에는 천지가 진동할 만큼 우승 축하로 전국이 떠들썩하였고(정찬모, 1997: 42).” 이로 인하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조선만세’를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올림픽우승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당시 민족의 울분과 감격 그리고 민족혼을 일깨우는데 촉매가 되었던 것이다.

깨뜨리고 보란 듯이 들어왔다. 나치(독일)가 그토록 정성을 들인 대회, 수만 명이 모인 그 화려한 폐회식 직전, 손기정은 신기록을 세우며 결승테이프를 끊었다.⁹⁾ 따라서 그는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의 우승자, 세계기록을 깨뜨린 기록보유자 결국 올림픽(마라톤)의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¹⁰⁾ 그러나 그가 시상식에서 보여준 모습은 스포츠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손기정은 경기를 마친 직후, 세계기록을 세우고 우승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신발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로 경기장을 떠나고 있었다. 이것이 이 연구의 세 번째로 살피는 사진이며 ‘문제의 몸짓’이다.

손기정의 선수생활은 베를린올림픽대회 이후에는 없었다. 따라서 시상대에서 다시는 그를 볼 수가 없었고, 스포츠영웅이 죄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감격에 벅차올라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몸짓으로 웃고 뛰어도 시원하지 않을 것인데 그와 반대로 오히려 침묵과 함께 처절한 죄인의 몸짓을 보여 주었던 손기정. 그의 그러한 태도와 그런 행위는 올림픽과 스포츠 현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 몸짓 표현은 스포츠내셔널리즘의 전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9) “올림픽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 나라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한 예는 올림픽 역사에서도 유래가 없었다. 올림픽경기에 대한 나치 제3제국의 전면적인 개입(준비)과 또 국가(민족)과시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 경기대회를 가장 국가주의 올림픽대회 혹은 스포츠내셔널리즘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당시 나치집권의 올림픽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새로운 독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주동진b, 2012: 257).”

10)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은 모습을 살펴보면, 머리에 월계수관을 쓰고 목에는 우승의 금메달을 걸고 있었다. 또한 당시 승리자에게만 주었던 월계수 나무화분을 들고 있었다. 당시 위대한 스포츠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월계수관은 당시 메달리스트에게 수여했던 나치가 만든 새로운 의식이었다. 참고로 손기정이 들고 있던 화분의 나무는 대왕참나무이다. 이에 대해 잘못된 내용들이 퍼져있어 이 논문에서 밝혀둔다.

3) 챔피언의 사인

손기정은 베를린 현지에서 조국으로 보낸 엽서가 있다. 엽서의 앞면에는 당시 손기정 자신과 2위를 한 영국의 하퍼(Ernest HARPER)선수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모습의 사진으로 제작되어 있다. 뒷면은 일반 엽서와 같이 간략한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다시 이 자세히 살펴보면 엽서의 앞면 사진에는 손기정의 사인과 하퍼선수의 사인이 찍혀있다. 여기에 ‘손기정’과 ‘KOREAN’이란 글이 있는데 이것은 손기정의 사인이다. 그는 그의 사인을 한글 이름과 국적표기를 함께 한 것이다. 그리고 뒷면 내용은 ‘슬프다!!!’란 한글의 한 단어와 기호 표시가 있다. 너무 짧은 글이다. 우승자로서 표현할 글이 그렇게 없었는가? 이를 보이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슬프고, 기쁘고 또 기쁘고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보면 손기정의 심정은 영광의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손기정은 사인을 할 때 ‘손기정’이라는 한글로 사인을 하고 그 옆에 ‘Korean’가 늘 붙어있다. 간혹 ‘한반도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본어를 배운 일본 식민지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왜 하필 한글로만 사인을 할까? 그리고 항상 코리아를 붙여 놓을까? 그의 이 엽서 유물이 이 연구의 네 번째 ‘문체의 사진(유물)’이다.

만약 일본 이름인 ‘そん きてい’ 그리고 ‘Japan’이라고 했더라면 일본에서는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이러니하게 그의 사인은 늘 ‘Korean’이란 국적과 ‘손기정’이란 이름이었다.

IV. 지도자시절의 스포츠내셔널리즘

1. 보스턴마라톤대회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마라톤대회의 하나인 보스턴마라톤대회¹¹⁾에 처음 출전한 것은 1947년 51회 때이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연(자부심)이 매우 큰 대회이다. 더하여 이 대회는 태극기를 달고 뛰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신기록까지 세운 대회이다. 이 마라톤대회의 영웅은 徐潤福이다.¹²⁾ 이어서 1950년 54회 때는 威基鎔, 宋吉允, 崔崙七이 나란히 1·2·3위를 하여 완벽한 ‘한국의 우승’이었다. 이것은 한국 마라톤 계뿐만 아니라 세계 마라톤 계의 역사에 있어서도 드문 경우이다.

여기에는 손기정의 숨은 노력이 있다. 광복 후 35세가 된 손기정은 선수로 뛴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체육(마라톤)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였다.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손기정은 서윤복을 데리고 가서 우승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38세 되던 1950년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함기용·송길윤·최윤칠을 데리고 가서 1·2·3위를 모두

11) 보스턴 육상협회가 후원하는 미국의 보스턴마라톤대회는 런던마라톤·로테르담마라톤·뉴욕마라톤과 함께 세계 4대 마라톤대회에 속한다. 이 대회는 처음에는 4월 19일이었지만 1969년부터 4월 3번째 월요일에 개최되었다. 1897년에 처음 열린 뒤 해마다 애국기념일에 열린다. 이 대회는 또한 마라톤 역사상 처음(1972년)으로 여자 선수의 참가를 허용한 대회이기도 하다. 이 대회는 최근에 이봉주가 우승한 대회(105회)이기도 하다.

12)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우승자로서 3위를 하였던 남승룡과 함께 보스턴대회의 출전을 요청했다. 여기에 서윤복이라는 제자도 함께하였다. 그러나 이 대회는 처음부터 서윤복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서윤복은 보스턴대회에서 우승하였고, 이로써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물론 당시 미국 교민들에게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다. 이 내용은 임석원·조문기(2009: 149-150)의 연구를 언론보도 및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이 차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손기정은 마라토너에 이어서 세계적인 마라톤 지도자로서 인정받았고, 한국은 마라톤왕국이란 별칭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마라톤종목에 대한 손기정의 노력으로 대한민국과 태극기가 국제대회(세계)에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연이은 우승으로 대한민국은 마라톤경기의 왕국으로써 그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한편, 손기정은 보스턴마라톤대회를 통하여 당시 미국동포들의 환영과 우승축하연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한국 마라톤이 세계최정상임을 거듭 증명(임석원·조문기, 2009: 150)”하였다. 또 한국정부가 하지 못하는 외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보스턴대회를 우승으로 마친 직후 손기정은 보스턴 시장 제임스 M 카레이씨를 방문하고 스프링·필드 대학의 체육시설을 시찰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조선대표 일행으로서 트루만 대통령을 회견할 예정이었으며, 세 선수에게 경비를 보태준 미군에게 사의를 표하기 위해 자개 목상자를 증정할 예정이었다. 또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를 시찰할 예정이었다(요약: 임석원·조문기, 2009: 150).

이러한 손기정의 활동들은 손기정이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스포츠영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마라톤감독으로서 교포들과 미국의 인사들을 만났지만 실제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민간)대표로서 활약(외교활동)을 한 것이다.

2. 행사 및 활동 모습

손기정은 자신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대회의 우승 선수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포츠영웅이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1947년 보스턴마라톤경기에서 세계기록 갱신과 함께 우승을 시켰고, 1950년 보스턴대회에서는 참가 선수들을 1·2·3위로 만들었다. 이로써 손기정은 마라톤의 명감독으로서 대단히 주목받는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다. 따라서 그의

명성은 외교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힘이 되었다. 실제로 “보스턴대회에서의 국위선양이 당시 공식적인 정부수립 이전의 한국을 1947년 6월 20일 IOC에 가입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1948년 한국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행사인 올림픽경기대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임석원·조문기, 2009: 150).”

국내에서 손기정은 감독으로서 또 체육인으로 체육행사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¹³⁾ 그 중 손기정이 눈물을 닦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사진을 또 하나의 ‘경우의 예2’로 삼았다. 이것은 해방이 된 1945년 10월 27일, 해방 경축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때의 사진이다. 이 대회는 해방 후 첫 전국체전이었고 여기에서 손기정은 태극기를 든 기수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내용은 광복된 조국의 땅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경기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 사진 역시 손기정의 스포츠내셔널리즘을 엿볼 수 있는 ‘경우의 예’이다.

V. 노년 이후의 스포츠내셔널리즘

1.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손기정은 88서울올림픽 때 76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직접 성화 봉송 주자로 뛰어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1936년 남의 나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지구 반대편인 유럽의 도시 베를린에서 뛰었던恨을 52년이 지난 1988년 조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의 마지막 성화 봉

13)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월드컵축로 이것을 모두 개최하여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국가(이미숙·김예성·김혜영, 2011: 11)”이다. 이러한 저력에는 손기정과 같은 체육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송을 맡아 경기장을 뛰면서 풀었다. 그는 태극문양을 가슴에 안고 뛰어 오면서 잠시 어깨춤도 추었다.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코리아 손기정’을 알린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그의 한을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풀 것이다.

그의 한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식민국가의 한’이며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무시당했던 ‘후진국의 한’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한’이라고 볼 수 있다. 손기정은 그의 한을 말이 아닌 몸짓으로 표현했고 이를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 주었다.

세계인들은 베를린에서 고개를 숙인 마라톤 영웅의 ‘한이 서린 몸짓’을 그제야 알고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76세의 성화 봉송 주자로서 스포츠, 즉 올림픽을 통하여 감동의 몸짓으로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세상에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었다.

2. 손기정의 투구 및 기타 유물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나치독일이 정성을 다하여 인류 최고의 축제로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올림픽, 그 마지막 경기까지 세계기록을 갱신하며 우승한 손기정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손기정 그 마라톤선수를 영웅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그 답례로 나치(히틀러), 그들은 손기정에게 고대 그리스의 유물인 청동투구를 부상으로 주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간주하여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보 904호로 지정했다. 그리고 당시 손기정이 받았던 “금메달, 우승 상장, 월계관은 문화재(문화일보, 2012년 02월 09일 사회면; <http://www.munhwa.com>.)”로 등록(예고) 했다.

손기정이 살아생전에 활동하였던 스포츠현장에서 설사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표정들은 스포츠내셔널리즘의 의미가 짙은 사진유물이 많다. 또한 그와 관련한 스포츠 활동에는 식민지의 울분과 가난한

나라의 설움이 배여 있는 경우가 또한 적지 않음을 찾을 수 있었다. 스포츠현장에서 보이는 그의 행위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스포츠내셔널리즘’이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한 ‘올림픽이상’에 비추어보면 민족과 인종을 넘어 진정한 스포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것과 관련된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종을 넘어 순수한 스포츠축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그는 침묵의 몸짓으로 스포츠의 갈 길을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일장기말소사건의 재평가

손기정과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민족사가 있다. 이는 일장기삭제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그해에 개최된 베를린올림픽, 그 세계적인 대회에서 日帝에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인이 우승을 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세계대회에서의 우승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¹⁴⁾을 북돋아주는 한편 피지배 민족의 설움과 항일 및 광복에 대한 갈망을 분출하는 계기를 줄 수 있었다.¹⁵⁾

14) 김교신(1974: 183)은 1936년 9월에 손기정군의 마라톤 제패라는 글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8월 10일 조조(早朝)에 베를린으로부터 손(孫)군 마라톤 일착의 전파가 다다른 순간부터 비등하기 시작한 전조선의 기쁨은 각 신문지가 최대의 문자로써 그 공을 상(常)하며 감사를 정(呈)하고 각종 잡지가 신영웅을 그리고 또 그랬건마는 아직도 다하지 못한 바 있으니 이 감격의 고조도 그럴 만한 일이다. 올림픽 경기 유래를 아는 이는 마라톤 우승이 곧 그 대회를 정보하는 일인 것을 잘 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하는 것처럼 화려한 일은 없다. 마라톤에 이기면 올림픽을 정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군은 정말 행복하다<대한 매일>-南部忠平’라는 대로이다.”

15) 김주화(2003: 9)는 沈勳의 시(제4연)를 해석하면서 손기정선수로 말미암아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외치고 있다. 혹독한 탄압을 견디고 온갖 민족 차별과, 정치적 사회적 압박을 딛고 우뚝 서서 세계를 제패한 것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용한 심훈의 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오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의 인류를

따라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배가시키려 하였다.¹⁶⁾ 그 중 조선중앙일보¹⁷⁾와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삭제하여 보도하였다.¹⁸⁾ 이것이 ‘日章旗抹消事件’이다.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시상대에

향해 외치고 싶다! ‘인제도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냐!’”

- 16) 동아일보의 사설 ‘청년들아 일어나자’의 내용은 일본에 대한 상당히 공격적이며 선동적인 글이다.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청년을 부른다. … 기쁠 대도 청년을 부르고 슬플때도 청년을 부르는 것이다. … 스파르타의 어머니는 짧은 창을 아들에게 주면서 ‘너 창이 짧다 이르지 말라. 그만큼 더 뛰어 나가라.’하였으니 … 이 말을 조선 청년은 듣는가 못 듣는가. … ‘평계로 전장을 물러서지 말자. 용기로 돌진을 계속하여야 된다. … 모든 전선에 총동원시켜 … 大功을 세워야 될 것이니 청년조선의 책임! 또 그 얼마나 무겁고 크다 할 것이냐(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 목, 2면; 주동진·김동규, 2006: 107).” 이 내용은 “대일 선전포고나 다를 것이 없었다(한국체육기자연맹, 1993: 86).”
- 17) 여운형이 “中央日報 사장을 하고 있을 때이다. 특히 손기정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의 사진이 실린 일주일이 지난 다음 8월20일(3048호) 朝刊 4면에 「마라손 孫君의 榮譽」라는 기사로 손기정선수를 칭찬하고, 8월 27일(3058호) 朝刊 4면에도 그 기쁨을 추가하고 있다(김동규·주동진, 2004: 38).”
- 18)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삭제(柳海鵬: 양정고보 출신으로 손기정의 선배)가 진행되던 8월 13일,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지상 천하에 넘치는 제패의 의기’라는 특보를 냈다. 여기에는 ‘청년들아 일어나자’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이길용기자(체육담당)였다. 그는 8월 11일(화) 2면에 이미 조선의 아들 손기정이라고 하였고, 8월 13일(목) 2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소생한 듯싶으니, 합차게 살아봅시다.’라고 실었다. 결국 8월 25일(화) 2면에서 일장기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문제의 일장기 말소사건의 시작이었다. 일장기말소사건은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만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손기정에 대해 당시 여러 언론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즉 조선일보 8월 11(화) 朝刊 2면에서는 손기정에 대한 보도로서 ‘넘어 치켜 세우지 마소, 무에 그처럼 대단 하오’라는 손기정의 말과 ‘잇따금 목이 매여 말을 끈쳤다니었다’는 소재목의 글들이 지면을 메웠다. 이 때 조선일보는 일장기를 단 손기정의 경기장면을 게재하지 않고, ‘손남 양군만세’ 등의 소재목과 함께 양정고보의 단추가 달린 교복과 일장기를 달지 않은 운동복의 손기정 사진만 게재하였다(주동진·김동규, 2006: 107).”

오른 손기정, 특히 고개 숙인 죄인의 모습의 취한 그의 행위는 더욱 더 일장기삭제 보도를 유도하는 촉매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는 올림픽 역사에서도 특별한 스포츠내셔널리즘의 모습이다.

4. 유럽 언론의 재평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챔피언인 ‘손기정의 보도사진’에서는 웃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세계를 제패한 그가 왜 기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숙인 죄인의 모습으로 시상대에서 있었다. 그는 실제로 웃지 않았다. 그러므로 손기정은 올림픽 역사에서 침묵과 함께 한 슬픈 우승자로 남아있다.

손기정의 보도사진 속에는 웃고 모습이 없을까? 그가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찾을 수 있었다. Berliner Illustrierte Zeitung(1936. 7.)이 그것이다. 이 언론은 손기정을 조선인(Korean)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손기정이 웃고 있는 까닭이 이 때문일까? 이 사진은 손기정과 스포츠내셔널리즘을 접목시키는 또 하나의 ‘경우의 예3’으로 삼았다.

결국 손기정이 웃고 있는 보도 사진은 일장기가 없는 유럽의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었다.¹⁹⁾ 손기정에게 웃음을 찾아준 것(웃고 있는 손기정의 모습 찍은 것)은 당시 유럽언론이었다.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여 제목을 붙인다면 유럽 언론이 만들어낸 ‘영웅의 웃음’ 혹은 ‘손기정의 웃음’이 될 것이며, 유럽언론의 ‘손기정 웃음 찾아주기’로써 이는 ‘조선청년의 스포츠내셔널리즘 돕기’라고 볼 수 있다.

19) “헝가리 신문 ‘NEMZETI SPORT’는 1936년 8월25일자 ‘올림픽의 교훈 (OLIMPIAI TANULSAGOK)’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8월9일 벌어진 마라톤 경기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손선수가 유색인이 강한 정신과 심장을 가진 우수한 인종이라는 실례를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다(미디어다음).”

VI. 결 론

손기정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 ‘2시간 29분 19초 2’라는 기록으로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챔피언이 되었다. 이에 손기정은 올림픽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손기정은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명예로운 시상식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 모습은 우승의 시상식에 오른 올림픽 영웅이 아니라 마치 단두대에 오른 죄인의 모습이었다. 가장 영광스런 순간에 그는 가장 처절한 몸짓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올림픽 역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고 이는 스포츠내셔널리즘의 전형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식민국가 청년의 서러움과 한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조국의 국기 대신에 남의 나라 국기를 달고 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식민국가의 한이 서린 감정이 올림픽 시상식에서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이 사진으로 인하여 조선의 언론들은 ‘일장기말소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조선인들은 자부심과 함께 항일정신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마라톤이라는 한 종목의 우승, 그리고 그 우승자의 비정상적인 슬픈 모습은 식민국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것은 그의 표정 하나로 생겨난 일이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의 우승 이후 손기정은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우승의 여운은 길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세계적인 영웅이었고 민족의 우상이었다. 광복을 맞이한 후(미군정기) 그는 다시 마라톤감독으로 변신하여 체육지도자로서 국제마라톤(보스턴)대회에 선수를 출전시켜 신기록을 갱신하고 또 한편으로 한 대회에서 1·2·3위를 휩쓸어, 대한민국을 ‘마라톤왕국’이란 명성을 가지게 만들었다. 스포츠현장에서의 그의 활약은 자신이 선수로서 또 감독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다. 손기정은 국내외적으로 명망 높은

그의 명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의 업적은 사후에도 높이 평가되어 그를 추모하기 위한 마라톤대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그의 유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특히 청동 투구는 국보가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찾아본 손기정의 '4장의 사진'과 '경우의 예 3가지' 사진은 손기정의 내셔널리즘을 살피는데 있어서 중요한 유물이다. 이러한 사진들에 내재된 공통된 분모는 내셔널리즘이다. 사실 손기정은 직접적이거나 혹은 전투적인 열혈남아와 같은 독립운동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과 그의 태도(몸짓)은 抗日정신을 나타내며 이로 인하여 광복운동의 파장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또 올림픽에 우승한 챔피언, 손기정 그가 영광의 시상대에서 보여준 몸짓, 그 모습은 다시 보아도 처절하다. 마치 단두대에 오른 것과 같은 죄인의 모습이다. 이것은 침묵의 항거(抗日表現)였다. 한편, 그의 사인은 늘 'Korean'과 함께한 '손괴정'이었다. 그에게는 'Japan'이 없었다. 이러한 예는 손기정식 내셔널리즘의 표현법이며, 침묵과 태도로써의 몸짓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손기정은 타계하고 없지만 '식민국가의 청년의 恨'은 그의 사진유물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다.

參 考 文 獻

- 김교신(1974), 「손기정군의 마라톤 제패」 『나라사랑』 17.
- 김동규·주동진(2004), 「夢陽 呂運亨의 體育文化活動」 『한국체육학회지』 43(3).
- 김주화(2003), 「베를린 마라톤 승자를 찬양한 두頌詩의 연구: 체육사학 하위 영역 가능성 탐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1.
- 모리카와(2012),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본 손기정 - 왜 조화하나 보내지 않았는가?」 『대한체육회·한국올림픽성화회 영웅 손기정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올림픽성화회.
- 박종진·김동규(2011), 「손기정의 마라톤경기에 비춰진 스포츠내셔널리즘」 『2011년 전국체육대회 기념 한국체육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손 환(2004),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학회지』 13(2).
- 손 환(2012), 「베를린올림픽을 통해서 본 손기정의 민족의식」 『대한체육회·한국올림픽성화회 영웅 손기정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올림픽성화회.
- 손기정(1983), 『나의 祖國 나의 마라톤』 서울: 한국일보사.
- 孫基楨(1985), 『ああ月桂冠に涙』 東京: 講談社.
- 유기성·서동환·유종상(2008), 「독일 월드컵 관련 보도속의 군사문화」 『한국스포츠학회지』 6(1).
- 이미숙·김예성·김혜영(2011), 「왜 스포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강화인가?」 『한국스포츠학회지』 9(1).
- 이태영(2012), 「손기정 선수의 생애와 정신 : 오늘 손기정 정신은 살아 있는가? - 스포츠영웅시대 개척자의 생애 조명」 『대한체육회·한국올림픽성화회 영웅 손기정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올림픽성화회.

- 임석원·조문기(2009), 「제51회 보스턴국제마라톤대회(1947) 출전 한국 선수단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 정찬모(1997), 「孫基禎 選手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制覇가 우리민족에게 주는 歷史的 意義」 『체육사학회지』 2.
- 주동진·김동규(2006), 「李吉用 체육문화 활동의 스포츠내셔널리즘적 의의」 『한국체육철학회지』 14(3).
- 주동진a(2012), 「손기정 다시보기」 『손기정탄생 100주년 기념발표회. 한국체육사학회 2012 하계학술대회』
- 주동진b(2012), 「제3제국(Das Dritte Reich)의 정책이념과 체육교육: Nazis의 체육정책」 『人文研究』 64.
- 한국체육기자연맹(1993), 『일장기 말소의거 기자 이길용』 서울: 인물연구소.
- 황영조(1998), 「마라토너 孫基禎의 生涯와 思想」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황영조(2009), 「마라톤의 문화적 인식과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인터넷자료 및 신문·잡지

- 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목) 2면; 8월 25일 5657호 2면 ; 동아일보, 보 존 필름 1936년, 943번 필름, 946번 필름.
- 손기정화보,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시실(2011.8.9.-10.9),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마라톤 영웅 손기정」.
- 조선일보, 1936년 8월 11(화) 朝刊 2면.
-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20일(3048호) 朝刊 4면, 8월 27일(3058호) 朝刊 4면, 八月十三日(木曜日) 三千三十六號, 朝刊 四面, 八月十二日(水曜日) 三千三十六號, 夕刊 四面, 五面.
- 2012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손기정소개; <http://www.sonkeechungrun.com>
- 문화일보, 2012년 02월 09일 사회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09010708300210010>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1009203812360>.

보스턴마라톤대회; <http://www.baa.org/Races/Boston-Marathon.aspx>

스포츠동아, <http://sports.donga.com/3//20080409/5105887/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5/14/0200000000AKR20120514077400073.HTML?did=1179m>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207100067&ctcd=&cpage=>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653358

Berliner Illustrierte Zeitung 1936. 7.;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1025195109020>

CANNEL;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20716/47791285/1>

IOC 홈페이지; <http://www.olympic.org>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http://www.sonkeechungrun.com>

이 논문은 2012년 11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12년 12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12월 1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Abstract>

Sports Nationalism of Sohn Kee-chung

Joo, Dong-jin·Kim, Jin Hyeong·Kim, Sung-il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sports nationalism in Sohn Kee-chung's photos. He was Chosun(Korea)'s marathon runner born in the Japanese forced-ruling period. He was a hero who joined in the marathon competition in the 1936 Berlin Olympics and broke a world record of marathon. However, in the victory stand, he seemed to feel miserable like a criminal stood in guillotine. The people of Chosun had a pride in the full flush of triumph by way of Sohn Kee-chung, a hero who won the marathon champ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of Chosun inspired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due to his stand similar to a criminal. The erasion of the national flag of Japan in his news photo is a good example. In short, this study is to examine 'silent resistance' of a drooping sad hero who resisted the Japanese Empire, not as first champion who broke a time of about two hours and thirty minutes in marathon, and also to reevaluate his traits such as his autographs, '손기정(Sohn Kee-chung's Korean name) and Korea', and 'the drawing of Korean peninsula' by him.

Key words : Sohn Kee-chung, sports-nationalism, 1936 Berlin Olympic, Marathon.